

##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규제도입 방안

2016. 6. 16.

## 관계기관 합동

### I. 외화유동성 규제 개편 필요성

- 그동안 은행 외화유동성 규제는 외화자산/부채의 만기 불일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, 외환건전성 강화에 상당부분 기여
  - '97년 이후, 3개월 이내 단기 자산/부채의 만기 불일치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고 규제대상·비율은 대체로 점진적으로 강화
    - \* 은행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추이 : (97.7월)70% → (00.6월)80% → (04.1월)85%  
'01.3월, 외화유동성 비율 산출시 선물 자산·부채 등 난외 항목도 포함
    - \* 중장기외화자금비율 규제 추이 : (91.1월)50% → (04.4월)80% → (10.7월)100%  
'01.9월 중장기외화자금규제 대상을 3년이상 외화대출에서 1년이상 외화대출로 확대
  - 단기(7일, 1개월, 3개월) 및 장기(1년초과) 외화부채의 만기구조에 맞게 외화자산을 운용토록 하여 만기불일치 위험을 완화

< 은행 외화유동성 규제(모니터링 비율) 현황 >

목적	규제내용	도입	만기	산출방식(보유한도)	규제비율(주기)
만기 불일치 관리	만기불일치 비율	'99.1월	7일	외화자산-외화부채	△3% (매월)
		'99.1월	1개월	총 외화자산	△10% (매월)
	외화유동성 비율	'97.7월	3개월	외화유동성 자산 외화유동성부채	85% (매월)
	중장기 외화자금비율	'91.1월	1년 (계약)	1년초과 외화조달 1년이상 외화대출	100% (매월)
자산 구성	안전자산 보유비율	'10.7월	-	①1년내 만기도래 차입 중 2월분 × (1-최저 차환율) 또는 ②전분기 외화자산 2%	100% (매분기) * 산은, 수은 제외
모니터링	외화여유자금비율 모니터링	'12.3월	3개월	외화 여유자금 3개월내 외화차입	최저지도비율 50%
	외화·중요통화 LCR 모니터링	'15.2월	1개월	고유동성 외화자산 1개월내 순외화유출	'16년 50% * 매년 점진적 상황

- 그러나, 현행 규제체계는 정상시의 만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운 위기시 대응하는데 한계
  - '08년 위기시 모든 은행이 외화유동성 규제(85%)를 충족\*하였으나, 차환을 급락, 실물 외화공급 감소 등 유동성 부족\*\*을 경험
    - \*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비율(평균) : ('07년말) 102.7% → ('08년말) 98.8%
    - \*\* 국내은행 외화차입 차환율 : ('08.1월) 126.4% → ('08.10월) 39.9%  
국내은행 외화대출 잔액(억달러) : (08.3Q)426 (4Q)431 ('09.1Q)409 (2Q)386 (3Q)371 (4Q)349
  - 현행 만기불일치 관련 규제는 위기시 외화자산 회수율 하락, 외화부채 유출 확대 등 외화자금시장 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\*
    - \* 외화유동성 비율 등 현 규제는 외화자산은 대부분 회수되며 외화예금(부채) 등 차입금외 외화부채는 유출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위기상황 반영 미흡

□ '08년 금융위기 이후, 한계점 보완을 위해 안전자산보유비율 등을 규제로 도입하였으나, 여전히 실효성이 미흡

○ 안전자산보유비율('10.7월)은 안전자산의 기준이 느슨하고 규제의 실효성도 낮음

- \* 국내은행 안전자산보유비율(15말 기준)은 628.6%로 규제비율(100%) 크게 상회
- \* 국내은행 안전자산보유비율 추이(기말, %) : ('10)384, ('11)478, ('12)514, ('13)602, ('14)573

○ '12년에는 여유자금비율(모니터링)을 도입하였으나, 지도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실효성이 낮음

- \* 은행 여유자금비율은 287%(15년말)로 지도비율(50%)을 크게 상회
- 특히, 여유자금비율을 일별 집계·주별 제출함에 따라 은행들이 콜론 등 손쉬운 외화유동성 확보에 치중하는 관행도 발생
- \* 국내은행 여유자금(외화 순콜론, 은행간 외화예치금, 외화지준, 외화표시 국공채, 은행간 외화 대여금 등)중 순콜론이 34.3%로 상당히 높은 수준

※ '11.6월 도입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\*의 경우 위기시 은행의 외환관련 대응여력을 점검중이며, 은행의 안정적 외화유동성 관리에 상당히 기여

- \* '08년 금융위기 상황이 3개월간 지속시 은행의 자금과부족 발생 여부를 점검중이며, '14.6월 이후 23개월 연속 모든 국내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

□ '15.2월,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('15.7월 시행)됨에 따라 기존 규제와의 목적·효과 측면에서 중복·상충문제 발생

○ '15.2월 바젤(BCBS) 권고\*에 따라 만기불일치, 자산 안정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외화·중요통화 LCR 모니터링 도입('15.7월 시행)

- \* 바젤III는 총부채중 5%를 초과하는 중요통화(외화) 부채의 LCR을 모니터링토록 권고
- \* '15년 지도비율 40%로 설정하고 매년 10%씩 최저 지도비율 상향 조정  
: ('15년) 40% → ('16년) 50% → ('17년) 60% → ('18년) 70% → ('19년) 80%(최종)

○ 외화 LCR과 목적·효과 등이 유사한 외화유동성 비율, 만기불일치 비율 등이 다른 기준으로 산출되어 중복적인 부담 발생

## II. 규제개편 방향 : 외화 LCR 도입, 중복·불필요 규제 폐지

### 1 외화 LCR 규제 도입방안

◇ 모니터링 비율인 외화 LCR을 규제로 도입하여 대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대응여력 강화

- 강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미리 확보해둔 고유동성 자산을 통해 실물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
  - ※ △은행 등 샘플조사 결과, '07년말 외화유동성 비율은 100%를 초과했으나, 외화 LCR은 20% 미만으로 위기 대응여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
- 외화부채가 작은 은행과 위기시 국내에 외화를 공급할 여력이 있는 수은·산은 등은 외화LCR 규제를 면제하거나 기준 완화
  - ※ 외화 LCR 면제대상 은행은 현행과 동일한 만기불일치 규제 유지

#### 1. 규제대상 : 모든 은행, 단 규모가 작은 은행, 수은, 외은지점 제외

□ ①외화부채가 작은 은행과 ②수은, ③외은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

① (외채규모) 총부채중 외화부채가 5% 미만이고 외화부채 규모 (난외 포함)가 \$5억 미만인 은행의 경우 외화 LCR 규제적용 면제\*

- \* '15년말 기준, 전북, 제주, 광주은행이 해당

- 바젤III는 특정통화(외화) 부채가 총부채의 5% 이상인 경우, 해당통화 자산/부채의 LCR 비율을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

- '15년말 기준, 5억달러는 우리나라 예금취급기관 대외채무 (1769.1억달러, 한은)의 0.3% 미만 수준

② (수출입은행) ECA 기관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, 정책금융기관 특성, 외화조달 구조 등을 감안하여 외화 LCR 규제적용 면제

- 미국, 영국, 일본, 캐나다 등도 ECA기관에 LCR 등 바젤III 적용을 면제하고 있고 국내 통합 LCR도 수은에 미적용

③ (외은지점) 본-지점 유동성 지원 약약서 징구, 본점에 대한 자국의 LCR 규제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외화 LCR 적용 면제

- \* 자국에서 본-지점 전체에 대해 LCR 규제를 받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외화 LCR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점을 감안

## 2. 규제비율 및 적용시기 : 80%(산은 60%), '17년부터 점진적 도입

- '17년부터 규제로 도입하되 규제비율은 '19년까지 점진적 상향
  - (시중은행) '17년부터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도입
    - ※ 시중은행 모니터링비율 : ('16) 50% → ('17) 60% → ('18) 70% → ('19년) 80%
    - 시중은행 규제비율(안) : ('16) 없음 → ('17) 60% → ('18) 70% → ('19년) 80%
  - (특수은행) '17년에는 既 발표된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40%로 도입하고 매년 20%씩 상향 조정
    - ※ 특수은행 :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
    - ※ 특수은행 모니터링비율 : ('16) 30% → ('17) 40% → ('18) 50% → ('19년) 60%
    - 특수은행 규제비율(안) : ('16) 없음 → ('17) 40% → ('18) 60% → ('19년) 80%
- 다만,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의 특수성\* 등을 고려하여 최종 규제비율을 20% 완화(모니터링 비율을 그대로 규제비율로 전환)
  - \* '08년 위기시 자체적 외화조달여력 및 국내은행 외화공급 역할, 외환부문 정책금융기능(PF, PEF, 국내기업 외화채권 발행 주관 등)
  - ※ 산업은행 규제비율(안) : ('16) 없음 → ('17) 40% → ('18) 50% → ('19년) 60%

## 3. 규제방법 : 매 영업일 산출, 월 평균 규제비율 이상 유지

- 매 영업일마다 외화 LCR 비율을 산출하되, 매월 평균적으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(통합 LCR과 동일)
  - ※ 일별 순현금 유출규모(분모), 고유동성 자산(분자)규모를 각각 합산하여 산출
- 매월말 잔액으로 산출시, 월말에만 일시적으로 고유동성 자산을 매입하여 외화 LCR비율을 높이는 것을 예방
- 외화 LCR 규제 위반시 제재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
  - ※ 현재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시 제재 : (1~2회)사유서·달성계획서 제출, (3~4회) 1회당 5%씩 규제비율 상향, (5회 이상) 규제 달성시까지 신규차입 금지

## 4. 규제비율 완화 : 위기시에는 금융위 의결로 규제비율을 완화

- 위기시 외화 LCR 규제를 준수하느라 실물부문 외화공급을 줄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등 신설
- 통합 LCR과 유사하게 위기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규제비율을 완화
  - ※ (감독규정 제26조)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미만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

## 2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 폐지방안

- ◇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, 실효성이 낮은 규제, 외화 LCR과 중복되는 규제는 폐지하여 불필요한 부담 해소
  - 7일 만기불일치비율 규제는 폐지 후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
  - 모니터링 비율인 여유자금비율, 외화 안전자산보유비율은 실효성이 낮아 폐지
  - 1개월 만기불일치 비율,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, 안전자산 보유비율 등도 외화 LCR로 대체가능하여 폐지
  - 시뮬레이션 분석(금융연구원) 결과, 외화 LCR을 현재 수준으로 충족시 외화운용 방법 등을 변경해도 기존규제는 모두 충족\*
    - \* 외화 LCR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경우, 약 10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외화자산의 만기, 유형 등을 변경해도 기존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없음

### ① 외화 LCR 규제 적용대상

개편 前		개편 後	
7일	만기불일치 비율	7일	폐지, 은행 자율적 관리
1개월	만기불일치 비율	1개월	외화 LCR 규제 도입 * 중요통화 LCR 모니터링
	외화, 중요통화 LCR 모니터링		
3개월	외화유동성 비율(3개월)		
	외화 여유자금 비율		
-	외화 안전자산보유 비율		
1년초과	증장기 외화자금 비율	1년초과	증장기 외화자금비율

### ② 외화 LCR 적용 예외, 기존규제 적용대상

개편 前		개편 後	
7일	만기불일치 비율	7일	폐지, 은행 자율적 관리
1개월	만기불일치 비율	1개월	만기불일치 비율 외화·중요통화 LCR 모니터링
	외화, 중요통화 LCR 모니터링		
3개월	외화유동성 비율(3개월)	3개월	외화유동성 비율(3개월) 폐지
	외화 여유자금 비율		
-	외화 안전자산보유 비율	-	폐지
1년초과	증장기 외화자금 비율	1년초과	증장기 외화자금 비율

※ '08년 금융위기를 가정(3개월간 지속)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외화 LCR 도입시에도 지속 실시

## IV. 기대효과

- ①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여력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기시 실물부문에 안정적 외화공급 지속 가능
  - 대외 충격시에도 거래(유동화)가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외채차환 위험에 대한 은행의 대응여력 제고
  - 고유동성 자산을 통해 단기외채 급증, 콜시장 쏠림현상 등 시장불안을 예방하고 실물부문 외화공급의 연속성 확보
- ② 외화 콜론 등에 편중된 은행의 외화 유동성이 선진국 국제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외화유동성의 질 개선
  - 국내 은행들은 외화 LCR 준수를 위해 콜론 비중을 축소하고 외화자산이 선진국 국공채, 우량 회사채 등으로 다변화될 가능성
    - 이 과정에서 외국 국공채, 우량 회사채 등 다양한 외화자산 운용경험 축적 등을 통해 국내은행 글로벌 경쟁력 강화
  - '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일시적으로 외화 콜시장의 수급 악화되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 가능
- ③ '97년 외환위기, '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첩적으로 도입된 외화유동성 규제를 목적·효과·실효성 등에 따라 일제 정비
  - 중복규제, 실효성이 없는 규제, 비공식 규제 등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부담은 해소하고 규제의 효과성 제고

## V. 향후계획

- '16.6월중, 은행, 협회 등과 금번 규제개편 관련 종합적인 의견 수렴
  - \* 외화 LCR 관련, 은행권 1차 의견수렴은 '15년 하반기 既 실시
- '16.7~12월,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

## 참고 외화 LCR 개념 및 해외 규제도입 사례

- (개념) '시스템 위기'시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을 감내할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(Liquidity Coverage Ratio)
  - \* 외화 LCR =  $\frac{\text{고유동 외화자산}}{\text{향후 1개월간 외화 순현금유출(유출-유입)}}$
- (특징) 거래상대방, 자산/부채 유형별로 외화유출입을 세분화하여 유동성 상황을 평가
  - (기본가정) 강한 스트레스 상황\* 하에서 자산/부채의 유출입을 상황을 평가하여 위기시 은행의 대응여력을 점검
    - \* 例) Committed Line을 현금유입 인정 안함, 對금융회사 자산은 고유동자산에서 제외  
외화대출 (기존) 대부분 100% 유동자산 인정, (LCR) 차주별 최대 50%까지 차등화
  - (분자: 고유동성 자산) 현금, 외화지급준비금, 高신용 채권 등을 신용등급·발행주체(거래상대방)별로 3단계로 차등화
    - \* 예시) A- 등급 국채 → (기존) 100% 유동자산 인정, (LCR) 85%만 인정
  - (분모: 순현금유출) 자산·부채의 유입·유출율을 자산/부채 특성별로 차등 반영하여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
    - \* 예시) (기존) 약정,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미고려, (외화LCR) 특성별로 5~100% 차등 반영
- (해외사례) OECD 국가들은 대외 시스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 특성에 맞게 외화(통화) LCR 규제를 변형·도입
  - \* 미국·유로존 등 국제통화 보유국은 별도 외화 LCR 규제 실익이 낮음
  - (터키, '14년) 은행 등에 대해 외화 LCR 규제 도입('19년까지 규제비율을 80%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)
  - (스웨덴, '13년) 자국 은행들이 외화조달 의존도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중요통화(유로,달러)에 LCR 규제 도입(규제비율 100%)
    - 한편, 자국통화(크로나)에 대해서는 크로나 표시 고유동성 자산부족 등을 이유로 완화된 규제비율(규제비율 60%) 적용
  - (아이슬란드, '13년) '08년 위기시 은행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외화유동성 부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, 저축은행, 기타 신탁·예치 기관 등에 별도의 외화 LCR 규제 도입(규제비율 100%)
  - (노르웨이) 은행 자금조달/운용시 자국통화(크로네) 의존도가 높아 통합LCR 외에 자국통화 LCR을 별도 규제(규제비율 60%)